B염 감염에 걸린 어머니도 중요합니다!

간염 검사를 받는 것을 잊지 마세요

모든 만성 B형 간염 보균자들은 아무 증상이 없고 건강하다고 느끼더라도 여전히 간손상이나 간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정기적인 검사와 적당한 치료를 받으면 간손상이나 간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고, 정상적이고 건강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주기	검사	검사항목
6개월마다	ALT 혈액검사	간손상
	AFP 혈액검사	간암
매년	초음파	간암

치료를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모든 만성 B형 간염 보균자들이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ALT 수치가 높으면, 항바이러스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약을 드시기전에 의사에게 물어보세요.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약이나 한약도 간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B형 감염 예방주사를 맞으세요

술을 마시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해 주세요

가족과 배우자가 B형 간염 검사를 꼭 하시고, 아직 예방주사를 맞지 않으셨다면 예방주사를 맞으십시오. 지역 보건소에서 신생아의 완전한 B형 감염 예방을 권하는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물리치기위해 뭉치자.

人

옥색 리본을 뜻하는 제이드 리본 (Jade Ribbon)은 한자 (사람 인)같이 접혀 있습니다. 제이드 리본은 세계 곳곳에서 B형 간염과 간암을 싸우는 사람들의 단합된 목소리를 상징합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아시아 간 센터

Asian Liver Center at Stanford University

780 Welch Road, CJ 130
Palo Alto, CA 94304
Tel: 888-311-3331
Fax: 650-736-8001
liver.stanford.edu
#JOINJADE
HepBMoms.org

KOREA EDITION
© 2016 ASIAN LIVER CENTER

B형 간염과 임산부

B형 간염과 임산부

- B형 간염은 가장 흔하고 심각한 간염의 종류로서, 간암이나 간 기능 약화로 인한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미국 안에서만 B형 간염으로 인해 매일 10-15명의 사람들이 사망합니다.
- 한국인 12명 중에 1명은 만성 B형 간염에 감염되어 있고, 자신이 감염되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 한국인들의 경우 B형 간염은 흔히 보균하고 있는 어머니에게서 출산시 신생아에게로 전염됩니다.
- B형 간염에 감염된 신생아들이 만성간염에 걸릴 확률은 90%에 이릅니다.
- 하지만, B형 간염은 B형 간염 예방주사를 맞으면 매우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의사에게 B 형 간염 검사결과를 물어 보십시오

대부분의 B형 간염 보균자들은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임산부는 아래에 있는 피 검사로 B형 간염에 감염되었는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B형 간염 항원** (HBsAg):
  만성 B형 간염에 걸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기를 세계 최초의 "암 예방주사"로 보호하십시오

B형 간염에 감염되지 않았다면, 예방주사를 맞으세요

B형 간염은 수혈이나, 주사, 문신바늘, 칫솔, 면도기, 그리고 보호되지 않은 성관계 등으로 전염될 수 있습니다.

6개월동안 받는 3단계 B형 간염 예방주사는 임신 기간중에도 안전합니다. B형 간염 예방주사는 간암과 간염을 예방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어서 세계 최초의 "암 예방주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출생시 신생아에서 꼭 예방주사를 맞히세요

1991년부터, 미국정부에서는 신생아가 B형간염 예방주사를 맞도록 권했습니다. 예방주사를 맞은 신생아들은 간암과 간에 생기는 병을 줄일수 있고, 평생동안 B형간염으로 부터 예방이 됩니다.

언제	신생아는 아래의 예방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출생시	1차 B형 간염 예방주사
1-2개월	2차 B형 간염 예방주사
6개월	3차 B형 간염 예방주사

예방주사는 조산아에게도 안전합니다.

B형 간염에 걸린 어머니는 더욱 조심 하세요

임신기간중:

현대 기술로는, 임신 기간중에 B염 간염 치료는 권하지 않습니다. 이미 치료를 받고 계시면 의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제왕 절개 수술을 해도 어머니로부터 신생아에게 B형 간염이 전염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B형 간염 예방주사와 HBIG 주사를 함께 맞는것이 신생아를 HBV로부터 보호할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출산시:

신생아가 1차 B형 간염 예방주사뿐만 아니라 immunoglobin(HBIG)를 맞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	B형 간염균을 보균하고 있는 어머니의 신생아는 아래의 예방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출생시	1차 B형 간염 예방주사와 B형 간염 immunoglobin(HBIG)
1-2 개월	2차 B형 간염 예방주사
6 개월	3차 B형 간염 예방주사
9-12 개월	유아가 감염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HBsAg와 B형간염항체 검사

* B형 간염 항체 혈액 검사는 B형 간염 예방 여부를 확인해 줍니다.

첫6달중:

신생아가 제때에 맞추어 B형 간염 예방주사 시리즈를 맞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생아에게 주는 B형 간염 예방주사는 간염을 예방하는데 있어서 최소한 95%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아기를 모유로 키우는것은 괜찮습니다. B형 간염은 모유로 전염되지 않습니다.